

3월의 문턱에서 새내기란 닉네임으로 시작한 멋진 대학 생활의 시작은 한마디로 설렘과 희망이었다.

3년의 지나간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보답으로 제공된 캠퍼스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대학 생활을 추억도 없이 허무하게 흘러 보낸다면 너무도 안타까울 것 같다. 학과 오리엔테이션 때 어느 선배가 한 말이 생각난다.

“입학을 축하합니다. 이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진정한 대학 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대학에 다니십시오. 정말 멋진 대학 생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